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이 걸어난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공장은 대규모의 식료가공기지로 전변되였다고,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하고있는 강병이를 원료로 당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강병이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당분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을 완벽하게 확립해놓음으로써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설비의 국산화비율을 95%이상 보장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뿐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최근년간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 식료공업부문이 앞장에 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

에게 질 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평양곡산공장을 현대화한것만큼 이제는 원료보장대책을 잘 세워주어야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공사는 반대하고 어려웠지만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을 믿고 대담하게 떨쳐나서도록 사상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결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불길도 세차게 타번지였다고 하시면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

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을 정말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 식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속에서 평양곡산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으로 보란듯이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

서적인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정형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널리 소개선전하며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주체적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국방종합대학에도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49돐을 맞으며 대학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주체적 국방과학교육사에 깃들어있는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대경사이며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국방공업전사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손길아래 국방종합대학이 수백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두고 여러 대학들과 학부, 박사원 등을 가진 주체적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과 학전시관, 전자도서관, 병기관 등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이 지난 기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국방종합대학의 사명과 임무가 특별히 중요하다 하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의 기본임무는 동방의 핵대국,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어나가는 기동감, 주체가 철저히 선 학술형인재, 실천형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국방종합대학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도 보내주고 수영장과 축구장도 멋들어지게 꾸려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교원재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

상문제도 원만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수백세대의 교직원살림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은 자신께서 제일 애착을 가지고 중시하는 대학들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수시로 보고받고 직접 풀어주시겠다고, 국방종합대학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실력있는 대학, 국방과학을 떠메고나갈 핵심공간,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우의 대학,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나라의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소금과 백금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를 돌이켜보시며 자신께서 체험한데 의하면 소금이 떨어졌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또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어려운 정황이었지만 소금이 발라 고생하는 고산진사람들에게 직접 소금을 해결해주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생활을 위해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 평평성제염소와 원산제염소를 건설하도록 대담하고 통이 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셨었다.

소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성분이다.

물론 빛과 공기, 물도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지역을 내놓고는 자연계에서 손쉽게 얻어낼수 없는것이 바로 소금인것이다.

소금은 짠맛을 가진 결정이다.

사람이 느낄수 있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은 여러 재료에서 그 맛을 볼수 있지만 짠맛은 오직 소금에서만 얻을수 있다.

조선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이며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시원하고 쯤한 김치와 구수한 토장도 소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40여년전 조선봉건왕조의 21대왕인 영조가 손자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가계 좋은 집안의 처녀들을 불러놓고 문제를 냈다고 한다.

《세상에서 제일 깊은것은 무엇인가?》
별별 답이 나왔다. 한 처녀

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영조는 이 처녀를 1차 통과시켰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무엇인가?》

모란, 매화 등 별별 답이 나왔다. 1차로 통과한 그 처녀가 말했다. 《목화이옵니다.》

놀란 영조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것은 무엇인가?》

온갖 산해진미가 답으로 나왔다. 2차까지 통과한 그 처녀가 《소금이옵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였다. 하여 현명한 답의 주인공인 그 처녀가 간택됐다고 한다.

《세상에 소금이상 맛있는것은 없고 물이상 단것은 없다.》는 속담이 전해오고 일부 나라들에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소금을 쓰는데도 다 소금의 귀중함을 인식한데서 산생된것이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소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난 5월 귀성제염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소금더미에다가가신

그이께서는 몸소 소금맛을 보아주시며 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보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또 규모있게 쌓여있는 소금더미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면서는 정말 호뭇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백금산.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부름은 꽤나 귀에 익은것이다.

퓌 오래전인 주제50(1961)년 4월 5일 나라의 강철공업발전과 대외무역에서 마그네사이

트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통양광산을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산은 《금산》이며 《돈산》이라고 하시며 투자를 집중하여 대규모광산으로 꾸릴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었다. 그때부터 이 광산은 귀중한 광물을 캐내는 백금산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백금산》이라는 장편소설과 TV 연속극도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성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을 보물로, 그득히 쌓여있는 소금더미를 백금산으로 불러주시었다.

장구한 인류력사와 더불어 흘러온 소금의 력사속에 그것을 귀하다고 치부한적이 있었어도 소금을 보물로, 그 소금더미를 백금산으로 높이 불러준례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소금더미가 그저 소금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백금산으로 보는것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다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함을 철리로 새기신 그이이시기에 경제적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으로 생산된 소금더미를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그것을 백금산이라고 부르신것이다.

정녕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성과 하나를 보시고도 그처럼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공화국의 인민은 따사로운 그 품에 안겨사는 행복감과 고마움에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귀성제염소의 소금밭

깊이 새겨주신 국산화의 참뜻

지난해 11월 어느날이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옹은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멋쟁이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공장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까지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는데 대해 높이 치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공장의 기술자들이 자체로 설계제작한 진공탈취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제품창고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을 나르는 로보트의 동작도 보아주시며 이 공장은 안팎으로 손색이 없는 공장이라고, 모든 공장들을 이 공장처럼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신직직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동행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 직장을 가리켜 국산화직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설비들이 100%국산화된 공신직장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국산화가 현대화의 기본 중핵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내려는 립장과 관점을 기동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본사기자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2)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 뜻깊은 대회합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강토의 절반땅을 강점한 미국의 범죄적행동에 의해 민족분렬의 비운이 드리워져있었다. 미국은 두차례에 걸친 쏘미공동위원회를 고의적으로 파란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저들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것을 만들었다.

1948년 1월 남조선에 들어온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미국의 지령에 따라 《단독선거》를 통해 친미피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책동에 의해 우리 나라에는 국토와 민족분렬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 엄혹한 시기 공화국은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련석회의소집에는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의해서 그 추종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겨레의 폭풍같은 지지와 찬

등을 받았다.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내의분렬세력의 방해책동은 악랄했지만 공화국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는 1 000여만명의 각계층 성원들이 소속된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다.

회의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는데 기초하시어 미제의 조국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업을 밝히시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남북련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조선동포들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결정서와 격문에서 조선인민은 《단독선거》에 의하여 꾸며지는 피뢰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

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감행되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 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정객들까지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20세기 새로운 문화정치의 대본영》이 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전취할 대계》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당시 련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

국의 남조선 《단독선거》 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1948년 4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련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는 리승만, 김성수일파의 3개 단체가 빠졌을뿐 극우익으로부터 좌익에 이르는 모든 단체가 참가하였다.》고 전하였다.

정녕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민족적대회합이 이룩되게 된것은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이 내세우는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얼마전에 진행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강국의 빛나는 용자를 세계의 하늘높이 받들어 올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개성시인민위원회, 고려의학과학원 등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 10여개 대상이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 기자는 업무원호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비물질유산처 처장을 만났다.

기자: 이번에 등록된 국가비물질유산들은 어떤 대상들인가?

업무원호: 지난 5월 4일 등록된 국가비물질유산들은 사회적관습과 레식 및 로동생활풍습, 전통의술,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에 해당하는 대상들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단군제례와 산삼리용기술 그리고 고려인삼재배와 리용풍습은 사회적관습과 레식 및 로동생활풍습에 해당된다. 단군제례는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추모하는 의례 풍습이다. 단군제례는 조상대대로 해마다 10월 가을걷이가 끝난 뒤에 열리었다. 고구려사람들은 B.C.

비물질유산보호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겠다

1세기중엽에 어린 산삼을 옮겨 자라우거나 산삼씨를 받아 산지대의 나무밑에 심었으며 백제에서도 B.C. 1세기말에 산삼의 비옥한 토양에 산삼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명산물인 인삼은 재배경험이 축적되는데 따라 고려시기인 11~12세기에 산에서 밭으로 옮겨져 널리 보급되었으며 개성지방은 이때부터 인삼재배의 중심지로 번성하게 되었다. 인삼은 최근 항로화작용, 면역작용



고구려사람들은 B.C.

화작용, 내분비와 물질대사계통에 대한 작용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지고 있다.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된 척추변형성질병에 대한 침치료술, 대퇴골두부근성파사에 대한 침치료술, 약침에 의한 치료법, 화침료법들은 우리 겨레가 수천년동안 병치료에 적용하여온 전통의술이다.

고조선때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침료법이 리용되고 발전해왔다. B.C. 1000년에는 금속침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으며 고구려, 백제의 명 의들은 일본에 건너가 그 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에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된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들 가운데는 썩떡만들기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썩은 해열, 진통, 리노, 살균, 해독작용

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봄철이면 썩으로 만든 떡을 먹곤 하였는데 그 가지수가 많을뿐 아니라 약효가 높고 맛 또한 독특하다.

록두지집중습과 파졸가공법, 동지죽풍습, 약용주로 리용하는 오갈피술과 백화술의 양조방법, 고조선시기를 전후하여 평양일대의 주민들이 강동의 아달산샘물로 제조한것으로 알려졌는 단군술양조기술이 국가비물질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사회적으로 비물질유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음을 알수 있다.

업무원호: 그렇다. 이번에 등록된 비물질유산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고려의학과학원, 보건성 만민제약협의회, 황해남도고려병원, 청류관, 동천호식당, 자

강도 강계시에서 살고있는 리송희가정, 류경건설지도국 옛명주개발기지 김원범, 황경숙부부 등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이 비물질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오래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산삼리용기술을 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한 리송희녀성은 우리 나라의 천연보물중의 보물인 산삼을 더 발전시키며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전해가기 위해 온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가고있다.

김원범, 황경숙부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애국의 마음을 안고 력사의 이끼속에 묻힌 민족의 옛 명주들을 찾는 길에 20여년 세월을 바쳐왔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종합리노스 고려치료과 의사 김미화선생은 고려의학은 민족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고령치료방법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을 새기고 세계적으로도 난치성질병으로 알려진 척추변형성질병인 척추만곡에 대한 침치료술을 완성시켰다.

비물질유산들에 대한 등록신청으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릴 때마다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을 송고한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옹바른 정책이 있고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세계화》라는 바람에 민족성이 점점 사멸되어가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대를 이어 전해져가게 되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든다.

기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진행되고있는 비물질유산보호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정형은? 업무원호: 2003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그 의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물질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는 2008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2014년에는 조선민요 《아리랑》이, 2015년에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김치 담그기풍습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비물질유산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겨레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해 민족의 귀중한 비물질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산업미술

최근 평양에서는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산업미술면모를 보여주는 국가산업미술 전시회가 진행되고있다.

전시회장에는 전국의 산업미술창작가, 미술부문 교원, 학생, 연구사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10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들과 모형들이 전시되어있다.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적관심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튜진기재형태도안들과 공업제품도안들, 건축 및 환경장식도안, 마감건축도안, 가구도안, 문장식도안, 식료품포장도안, 일용필수품도안, 화장품상표 및 포장도안, 광고도안들은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이번 산업미술전시회에는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다양한 산업미술도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궤도전차, 지하전동차, 버스, 분무용차, 도로청소차, 소형농치는기계,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튜진기재형태도안들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형상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

아했다. 그밖에 각종 일용제품들과 식료가공품, 가정용품, 방직, 신발 등의 산업미술도안들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세포고기 가공품상표도안》, 《가정용종합공가공기》, 《나노초물신발도안》, 《가정용국수분통형태도안》, 《녀성들의 머리빈침도안》, 《자전거주차장형태도안》은 착상이 좋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전시회장에 출품된 창작거리의 거리표식도안들과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만수교청량음료점과 같은 인민봉사기지의 간판도안들도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리면서 미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멋이 있었다.

이번이 아니다. 전시된 식료품상표도안, 놀이감도안, 광고도안들은 도안미술의 특성과 예술적품위를 훨씬 돋구어주고 있다. 원형고리우에 별을 올려놓고 그것을 치받드는 곰둥이를 만화적수법과 양식화, 선묘법으로 형상한 《릉라곰둥이관 마크도안》, 해학적

인 맛을 살린 《만수교고기상점간판도안》, 곰둥이의 운동상태를 양식화한 《곰둥이축전지자동차도안》 등만 놓고보아도 매 도안들의 품격과 양상을 정서적으로 잘 살리고있다.

전시된 산업미술도안들에는 만화적수법과 컴퓨터에 의한 3차원, 4차원화상처리로 대상의 립체감과 세부질감을 생동하게 반영한 회화적수법, 사진합성수법, 환상수법, 상징수법 등이 널리 활용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주문봉사활동도 진행할수 있도록 수백점의 실현제품들이 상품도안과 함께 전시되어있어 참관자들이 좋아하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소형중독기, 일체식 TV/DVD복화기, 민들레 학습장, 신발, 가방, 천리마타일, 가구, 머리빈침, 식료품, 의약품, 벽지, 유리공예사진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참관자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련일성황을 이루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보통강에 화초를 재배하는 생태띠우개가 생겨나 보통강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교원, 연구사들에 의해 설치된 이 생태띠우개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있다.

흔히 물우에 뜬 꽃이라고 하면련꽃을 생각하군한다.

하지만 지금 보통강물면우의 생태띠우개에는 룡상식물인 천수국, 만수국, 제라리눔, 아게라눔, 세네라리눔, 칼라, 제비꽃 등 수십가지의 꽃들이 자라고 여기에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어 이채로움을 더해준다. 특히 밤에는 갖가지 조명까지 비쳐주어 보통강반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이 이채로운 풍경을 보려 많은 사람들이 보통강반을 찾고있다.

보통강의 물우에 활짝 핀 화초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처녀총각들, 화초구경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아름

강물우의 꽃풍경

다운 꽃풍경을 그림에 담은 미술가들...

이곳으로는 낚시군들도 경쟁적으로 찾아오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생태띠우개밑에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기때문이다.

보통강반에서 오래동안 낚시질을 해왔다는 최광호호인은 생태띠우개가 생겨나서부터 이곳에 물

고기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화초감상도 하고 더 많은 물고기도 잡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웃으며 말하였다.

이곳의 생태띠우개는 그우에서 화초를 재배하면서 동시에 강물의 오염도 미리 막을수 있어 여

강물우의 꽃풍경

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 즉 생태띠우개의 화초들이 강물에 풀려있는 질소, 린 등을 영양성분으로 흡수하면서 무기물질들도 제거하여 물을 정화하기도 한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기술에는 기계적인 장치나 화학적방법을 도입하거나 화학적방법으로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방법

들모만 가지고서는 물에 풀려있는 오염물질을 말끔히 제거할수 없으며 원가 또한 많이 든다. 그러나 생태띠우개방식으로 물을 정화하면 적은 원가와 로력을 들이면서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물에 풀려있는 오염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할수 있다.

이로부터 생태띠우개방식에 의한 물정화기술은 오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참으로 물정화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미화로 사람들의 문화적생활에 이바지하는 생태띠우개야말로 평범고 알 먹기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이전 산업미술전시회에는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다양한 산업미술도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궤도전차, 지하전동차, 버스, 분무용차, 도로청소차, 소형농치는기계,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튜진기재형태도안들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형상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



새형의 로력절약형, 에너르기절약형 농기계들

최근 공화국의 농기계부에서 12종의 현대적인 농기계를 개발하여 내놓았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연구개발한 소형벼수확기, 종합도양관리기계, 이동식강병이종합탈곡기, 이동식벼중합탈곡기, 소형도랑파는기계, 배양식미립분무기를 비롯한 12종의 농기계들은 국내외 자연지리적, 지방별특성과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제작완성되었다.

경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제시하신 과업

을 심장에 새긴 농기계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농촌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능률높은 농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알곡중산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새로운 농기계를 성과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소형벼수확기만 보더라도 연유소비량이 적고 작업능률이 대단히 높아 매우 실리적이다. 이 농기계의 하루작업량은 3.5정보로서 한사람의 운전공로력만 있으면 수십명의 로력을 절약할수 있다. 종합도양관리기계는

깊은층들취갈이를 하면서 동시에 흙받부스리뜨리기와 수평고루기를 진행하는 능률적인 농기계이다.

이동식벼중합탈곡기, 신원련결농기계공장에서 제작한 이동식강병이종합탈곡기, 과산련결농기계공장에서 제작한 소형도랑파는기계들도 필요에 따라 임의의 장소로 옮겨가면서 영농작업을 할수 있게 설계제작되었다.

배양식미립분무기는 약물분무장치에 극소형전동기를 설치하여 분산되는 약물방울들이 회전원반의 원심력에 의하여 보다 미립화되어 뿌려짐으로

써 약물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배양식미립분무기를 앞뒤비료주기에 리용해본데 의하면 정보당 약물소비량은 종전의 수압분무기에 비하여 1/20로 줄어든 반면에 작업능률은 적어도 5배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지금 농기계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60-70%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협동별마다에 자체로 만든 농기계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자 강 의 정 신 력 으 로

—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 리철배지배인에 대한 이야기 —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에서 오랜 전통이 깃들어있는 낫그릇집기류들을 가벼우면서도 아름다운 색깔과 광택을 내는 세련된 제품들로 만들어 내놓았다. 지난해에 이 공장에서 만든 낫국수그릇과 낫밥사발, 낫수저, 낫선로 등 금속집기류들은 국제국내의 품질인증을 받고 인민들의 호평을

민속전통을 굳건히 이어

공장에 들어선 우리를 리기 원기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아보느라 부지런적은 얼마 크지 않아 3층짜리 건물의 외벽이며 마당의 구석구석이 알뜰하게 꾸러진 것이 아담하고 안온한 감을 주었다. 깨끗하고 밝은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낫그릇제품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공 2작업반에서는 나 어린 총각노동자의 쩌뻑 손놀림에 따라 연마공정에서 넘어온 신선로웃면뚜껑에 순식간에 진달래꽃이 피어나고 오랜 기능공인 윤백희녀성의 섬세한 손놀림에 의해 잠간사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된다반우에 생겨난다. 장식부각부들이 새겨진 낫그릇들이 세척공정으로 넘어가고 여러차례의 세척을 거쳐 번쩍번쩍 윤기나는 눈부신 낫그릇제품들이 생겨난다.

이 공장은 원래 세공품들과 보석가공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이 1975년부터 갖가지 세공품들과 보석가공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하고 국내에도 많이 판매했으니 소문이 요란했지요. 그런데 2002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책동으로 인하여 수출이 금지되면서 공장이 텅어서게 되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할수 없으니 제품생산을 할수 없었고 제품생산이 진행되지 못하니 공장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낫그릇제품을 만들수 있었는지. 《정말이지 그때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리철배직장장이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낫그릇제품을 만들수 있게 된것은 대대로 전해져내려오는 민속전통을 굳건히 이어 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지배인의 발기에 공장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합쳐진것입니다.》라고 하며 기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형편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을 활성화하는데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세공을 전문으로 하던 공장의 특성에도 부합되는 일감을 찾아야 하였다. 대중토의에 붙여놓고 많은 책을 읽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던 리철배지배인이 낫제품을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12월15일 품질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았다. 보기에도 좋고 쓸모도 있으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질적수준이 더욱 높아진 이 낫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다. 미처 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낫그릇제품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제품, 명제품으로 태어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싶어 기자가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을 찾았다.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낫그릇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써오기도 하였지만 사람의 건강에도 좋으며 동화합물은 벌레들과 균을 죽이는데 쓰인다고 한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도 사람들은 밥, 국, 나물, 찬 등 모든 음식들을 낫그릇에 담아먹었고 세수대야나 시루, 화로까지도 낫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물을 채운

모든것을 자력자강으로

《이 낫그릇제품들은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자력자강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공장의 어디서나 들려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궁지에 넘친 목소리이다. 안순기생산부원은 《낫그릇제품을 만드는 일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예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자재도 없었고 기술자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리철배지배인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남을 쳐다보면서 손뻐를 놓고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나가자고 종업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라고 하며 그때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자면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지배인 부러가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과학탐구의 앙상에 섰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높이기 도록 하는것과 함께 노동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고 공장안에 대중적기술혁신의 불바람이 일도록 작업반별 기술혁신경쟁을 조직하였다.

독안에 낫그릇을 넣어두어 물을 정제하였고 절임음식을 만들어 단지에 담고 가운데 낫을 박아넣어 음식물의 부패변질을 막았다. 낫그릇을 많이 리용하여서인지 옛날사람들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고 고유한 민속전통을 이어나가는데도 좋은 낫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는대로 공장종업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렇게 낫그릇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것이다.

이 공장에서 만든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을 주는 아름다운 색깔과 은근한 광택, 여러가지 섬세한 장식부각으로 하여 정교한 세공품을 련상케 하는 신선로, 낫국수그릇, 낫밥그릇, 낫수저를 비롯한 낫제품들은 첫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들였다. 세공품같은 낫제품들에는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고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의 얼굴이 뚜렷한 인기제품을 내놓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온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열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리철배지배인은 기술자, 기능공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으며 하나의 기술지표를 얻기 위해 멀고먼 출장길에도 올랐다. 설비제작으로 며칠밖씩 밝히기도 하였는데 심한 동통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면서도 일손을 놓을 줄 몰랐다. 공장을 대표하는 제품을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만들어내려는 지배인의 불같은 열정에 감동되어 모두가 분발하였다.

낫제품을 경량화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소재공정의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론의를 거듭했다. 주물방법에서 벗어나 압연하여 늘기방법을 도입하면 제품을 경량화할수 있다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자면 용해공정에서부터 원료를 갱신해야 하였다. 수입원료는 취성이 너무 강하여 압연하기 힘들었던것이다.

이때에도 리철배지배인은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흔한 청동으로 낫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납의 원료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것으로 손색없는 낫제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

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우리의 원료를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수십차례의 시험끝에 우리 나라에 흔하면서도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아연과 동의 합금인 황동을 기본금속으로 하여 내식성을 높이고 기본금속에 석을 적당히 섞어 제품의 색깔을 보다 아름답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소재공정의 생산자들은 금속늘기기를 손색없이 하기 위하여 기발한 착상으로 선반에 형타를 설치하여 두께가 얇은 금속판도 순간에 늘기어 그릇모양으로 만들수 있게 설비를 개조해놓았다. 도금공정의 생산자들은 그릇의 안쪽면도 광택이 나면 좋겠다는 인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금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여 그릇의 결과 안을 다같이 연마할수 있게 해놓았다. 세공작업반에서는 압연한 얇은 금속판을 뻤할수 있는 풀과 광택제를 우리의것으로 개조하여 자체의 국산화도 실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기술자들은 용해, 압연, 교정, 가공, 연마, 광마, 조각, 세척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공정을 실정에 맞게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

마 음 과 뜻 을 합 쳐

리철배지배인의 사업에서 특 징적인것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보장에 첫째가는 힘을 냈고있는것이다.

공장종업원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공장 후방창고에는 재고라는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종업원들에게 작업복을 공급한적이 있었는데 한벌씩 골고루 공급하고 남아서 창고에 넣어두려고 하였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배인동지는 종업원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나누어주도록 하였습디다.》, 《공장의 오랜 기능공들에 대한 지배인동지의 관심은 남다르답디다. 나는 35년째 공장에서 일해오고있는데 가정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관심해주며 겨울용멜감문제와 생활상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지배인동지를 볼 때마다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 우리 공장에 대한 애착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집니다.》, 《우리 지배인동지는 공장종업원들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주고 평가사업도 공정하게

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원료, 자재, 설비가 국산화된 새로운 생산공정에서 첫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을 확립하니 기술적과약이 그 누구에게나 환하였고 제품에 대한 애착심은 더욱 강렬해졌다. 생산자들이 제품에 쏟아 붓는 정성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누구라 할것없이 품질관리의 주인이 되었다.

세공작업반 생산자들이 앉으나서나 장식부각을 더 아름답게 할 방도를 찾기 위해 속사련습을 하고 합리적인 세공공구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기 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기풍이었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가 실현되니 로력과 자재가 절약되고 생산공정이 단축되었다. 하여 종전에 한계를 만드는데 들인 원료를 가지고 여러개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각이 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라는것은 진리이다.

《우리는 인기있는 명제품들을 자력자강으로 팡팡 만들어 인민생활에 이바지해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의가 꼭 실천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공장을 떠났다.

《우리는 인기있는 명제품들을 자력자강으로 팡팡 만들어 인민생활에 이바지해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의가 꼭 실천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공장을 떠났다.》

《우리는 인기있는 명제품들을 자력자강으로 팡팡 만들어 인민생활에 이바지해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의가 꼭 실천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공장을 떠났다.》

—종업원들모두의 마음을 어

떻게 하나로 지향시킬수 있었는가.

《종업원들의 성과이자 공장의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고 야마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추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일을 빨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기능이 어린데도 있겠지만 맡은 일에 대한 무책임성, 집단주의정신이 부족함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자기가 맡은 과제를 다 할수 있도록 정신력을 발동시켜 분발하도록 하였던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자습으로 여러 나라의 말들을 습득하였습니다. 대방들과 사업하사니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읽기도 몹시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력사책은 불수 있는것 다 보았습니다. 언젠가 다른 기업소에 간적이 있었는데 력사이야기를 한참 하거나 저를 대학교원인가 하더라 말입니다. 책속에는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인간생활, 경영활동, 과학리론...》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오래전의 세공문양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진행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유용하게 리용되고 쓰기에 편리한 낫그릇들을 인민들의 발전하는 문화정서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더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인기있는 명제품, 누구나 즐겨 찾는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수입산이 아닌 우리의 보석가공품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오던것들을 모두 발굴하여 여러가지 세공품, 보석가공품들도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공장에서 보석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올것입니다.》

우리는 인기있는 명제품들을 자력자강으로 팡팡 만들어 인민생활에 이바지해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의가 꼭 실천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고영숙



시 묶음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로

겨레여, 우리에게 백두산이 있다

김 태 룡

그 날은 오리라

리 송 일

분렬의 세월에 살아
 겨레가 것처럼 피타게 갈망한 통일
 그 통일의 새시대 6.15가 펼쳐다면
 6.15의 응지 펼쳐진 곳은 백두산
 겨레여, 오르자 백두산으로

그래서 아니었더나
 백두산에 오른 남녘의 동포들
 천지의 맑은 물에 가슴적시며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고
 저저마다 감격을 터쳐올린것은

해마다 6월이 오면
 의례히 찾게 되는 대동강기슭
 오늘도 그대로는 지나칠수 없노니
 앉았다 가자 민족작가대회 그날에
 남녘의 시인과 나란히 앉았던 그 돌의자에

그 약속 뜨겁지 못해
 흥분으로 뉘뉘던 그 피가 식어
 우리 진정 만날길 없단 말인가

분렬의 세월 끝장낼 대용단 안으시고
 눈덮인 백두산정에 오르신 장군님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특기할 사변 이루신 그 업적으로
 더더욱 장엄한 백두산

6.15를 이 땅우에 안아왔고
 6.15시대 기어이 다시 펼칠
 든든한 배짱과 신심을 주는 백두산
 일일천추 통일을 바라는 겨레여
 백두산을 안고살자 백두산에 오르자

비어있겠지만 그가 있으리라
 믿고만 싶어지는 마음이어
 해마다 6월이면 다시 만나
 통일의 시줄 함께 엮자던 그
 다시 만나리라 기대하고싶은 마음이어

반통일의 무리들 아무리 발악을 해도
 6.15가 이어준 민족의 혈맥
 끊을수 있으랴 허물수 있으랴
 나는 다시 만나리 남녘의 시인과
 통일의 길에서 다시 만나리

천리수해를 내닫는 거센 바람은
 반세기 넘는 분렬세월 휘몰아 내던진
 통일의 역세인 강풍
 남해의 한끝 한나까지 품어안은 용자는
 온 삼천리를 품으시던 장군님의 크나큰 도량

반통일의 광풍 세차게 몰아치면
 이 산정에 올라 그 광풍 맞받아 쳐갈길
 백두의 드센 칼바람을 버려안자
 가는 통일의 길에 때로 힘이 부칠 때면
 백두의 정기를 가슴그득 채우자

이렇게 흐른 세월은 헤여보아 몇해째
 년년이 6월은 찾아왔어도
 만날수 없는 남녘의 시인
 통일의 시어를 찾지 못해
 심장이 뛰는 시구를 엮지 못해
 우리는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원수님 밝혀주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이제 이 땅에 자주통일시대 장쾌히 펼쳐리
 온 겨레 감격의 환희 터쳐올릴 그날은 오
 리라

이 땅의 지맥이 시작된 성산
 오, 장군님 이 성산의 메부리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 다시 이으시여
 뜨거운 피 뉘뉘게 하시였거니
 백두산은 민족의 산 통일의 산

백두의 뜻 백두의 정신이 이루지 못한
 그 어떤 리상도 소망도 없었거니
 백두산은 민족의 통일
 겨레여, 우리에게 백두산이 있다
 백두의 뉘 뉘뉘는 6.15정신이 있다

민족의 가슴에 뉘뉘는 통일열원
 시가로 터치자던 그날의 약속
 남녘의 시인이여, 묻노니

남녘의 시인이여 서로 떨어져있어도
 통일열망의 붓을 더 높이 들자
 남녘의 겨레여
 분렬의 장벽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자주통일의 대토로 휘황히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통일의 생명

김 송 립

통일의 봄 안아오자

김 태 룡

그리움속에 추억도 뜨겁고
 통일의 열망 용암으로 끓어번지는
 겨레의 뉘뉘는 가슴 헤쳐보라
 운명의 숨줄처럼 소중히 간직된
 통일의 진리가 있다 민족자주!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5월의 높은 연단에서 선언하셨나니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흘린 피와 눈물도 많았고
 시련도 곡절도 많은 조국통일의 길
 70여년 그 고통과 불행의 세월속엔
 통일을 목메여 부르다 간 세대도 있고
 그 원한 유산처럼 넘겨받은 세대도 있다

주저앉으면 6.15는
 영영 눈물에 피에 젖으리
 분렬의 치욕 영원히 씻지 못하리

민족자주
 이 뜻으로 통일의 환희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열었다
 하나로 된 통일조국의 강대한 힘도
 이 부름으로 우리는 그려본다

힘이 있다 우리 겨레에겐
 운명개척도 통일도
 천하에 강성을 펼칠 존엄도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끼리로
 오직 자기의 힘으로 이를 자신이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
 통일을 숙원으로만 안고 모대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할바에야
 민족 8천만이 있어 무엇하리
 분렬의 동토대 녹여내지 못한다면
 우리 뜨거운 심장 지녔다 말하지 말자

락엽처럼 흘날려버릴수 없는
 6.15시대의 소중한 그 모든것
 반통일의 차디찬 장설에 묻힐수 없는
 6.15시대의 귀중한 삶의 환희
 통일의 열망 절절한 숙원이여

돌이켜보자 민족분렬의 역사를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리익을 준것 무엇인가
 과연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우리 겨레 아직도 갈라져 사는것인가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렬
 외세의 손이 아닌 동포끼리 손을 잡자
 외세에 구걸 아닌 제 민족과 심금 터놓자

장설에 덮여도 양춘을 믿는 소나무
 봄을 그리 눈서리에 파묻혀도
 푸른 절개 굽힘없는 소나무
 겨레여, 통일의 의지 변치를 말자
 남산의 푸르른 소나무처럼

통일애국의 거족적인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를 불러
 장엄히 선언하신 통일의 대강이
 삼천리 이 강토를 뜨겁게 달구어주거니

본적 없었다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
 진정으로 동정해준 그런 외세는
 우리 민족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 바라는 그런 외세는 없다

동족과 함께 통일의 길 가겠는가
 외세와 함께 파멸의 길 걸겠는가
 역사의 이 중대기로에서
 6월은 겨레앞에 웨치노니
 민족자주, 민족자주에 통일이 있다

한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 해도
 이 의지 새겨 산악같이 일떠서면 통일

기다려 오지 않는 통일의 봄
 겨레여, 절세위인의 그 뜻으로 안아오자
 꺾이지도 변하지도 않을 겨레의 통일신념
 오, 그 신념 비껴안은 6월은 푸르다
 남산의 소나무 그 푸른빛처럼

불멸의 통일리정표 따라

김 윤 식

6월은 웨친다

김 영 일

삼천리에 겨레의 가슴에
 열여섯번째 년륜을 새겨온 6.15
 얼마나 좋았으랴
 겨레가 통일환희에 살던
 그 6.15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면

6.15를 애타게 바라는 오늘에도
 우리 민족끼리 이는 변함없는 통일리정표
 겨레의 가슴에서 심장을 들어낼수 없듯
 들어낼수 없으랴 통일의 이 리정표
 6.15가 가리키는 그 길이
 우리 민족끼리가 밝혀주는 그 길이
 민족이 사는 길 통일을 이루는 길

신록이 짙어가는 6월
 겨레는 가슴젖어 펼쳐본다
 백두산에서 한나산끝까지
 통일에 살아 가슴벅차던 세월
 우리 민족끼리시대 그 감격의 갈피를

6.15는 다시 올수 없는 그리움이너나
 흘러간 세월의 갈피에 묻은 추억이너나
 6.15시대가 가슴에 품은 그리움만이라면
 통일은 언제 가도 이룰수 없는 꿈
 분렬의 암흑은 나날이 짙어만가려니
 사랑한다면 지키자 6.15
 소중한다면 꽃피우자 6.15

6.15의 날과 날 그대로 흘러왔다면
 맞부비는 가슴에 끓어넘치는
 따뜻한 동포애의 진한 정은
 분렬의 깊은 상처 다 아물게 하였으리라
 조국은 통일국가로 그 존엄 더욱 떨쳤으리

6.15통일리정표가 가르키는
 그 길을 따르면 통일애국
 그 리정표를 없애려하면
 그것은 민족반역, 반통일이거니

분계선은 있어도 가를수 없는
 뜨거운 통일열망이 장쾌히 굽이친 시대
 남이 아니면서도 남처럼 살아야 했던
 불신의 세월 밀어내치고
 뜻과 맘 하나로 합쳐 산 단합의 시대

온 겨레가 환호한 5월의 통일대강에서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운명개척도
 우리 민족끼리로 이를 철석의 의지
 드높은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허나 겨레여
 우리 뜨겁게 잡았던 손 놓은지 어언 몇해
 통일의 대하 굽이쳐가던 그 길우에
 불신과 대결의 얼음장 덮여
 오지도 가지도 못한채 또 어언 몇몇해

조국통일의 대통령을 향하여
 온 겨레를 부르신 절세위인의 불같은 호소
 그 호소따라 폭풍치는 민족의 앞길에
 6.15통일리정표가 있다
 그것은 8천만 민족의 생명의 표대
 통일의 역세인 기둥이여라

불러본다 이 6월에
 통일이 날리며 남녘의 동포들 오던
 평양과 금강산 백두산이여
 통일이 날리며 북녘의 겨레가 가던
 광주와 부산 제주도여

통일의 진로 밝혀준 그 대강 있어
 겨레는 6.15세상 반드시 다시 안아오려니
 신심으로 락관으로 맞이한 오늘의 6월
 겨레는 웨친다
 어제날의 그리움만이 아니다 6.15는
 민족의 오늘이며 래일의 통일세상이여라

이대로 잃을수 없노라 6.15
 백지화할수 없노라 6.15의 숭고한 뜻
 통일환희에 살던 그 나날에도

손을 잡고 어깨결고 부르던 통일노래
 대지를 뉘뉘들던 통일렬차 기적소리
 그 격동 그 환희 그 열광
 오늘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겨레

유엔은 조선반도정세완화와 통일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참가자들이 유엔사무국에 보낸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13일 유엔사무국에 전달하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유엔사무국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련석회의를 진행하고 권위있는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알려진 유엔이 공정한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귀 사무국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물로 갈라지는 쓰라린 비극을 당한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기와 년대가 바뀌고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분렬민족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렬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이 땅에 통일과 평화,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절절한 소망이고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우리의 영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깊어가는 민족의 아픔과 날로 첨예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통찰하시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때 대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은 오랜 력사적 투쟁을 통해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확증되고 북과 남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깊이있게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방략입니다.

특히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북남관계의 현 과국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법하고 획기적인 제안들은 민족내부에서 격화되고있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선반도의 초긴장상태를 완화의 방향으로 돌려놓을수 있는 새로운 출로를 명시해주고있습니다.

담고있는 사상의 심오성과 진리성, 실천적방안들의 합리성과 현명성, 차 넘치는 애국애족의 뜨거운 진정으로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환영을 받고 있는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과감히 열어나가기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이미 그 실천투쟁의 막은 올랐습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조선의 분렬과 통일문제에 깊은 련관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유엔이 과연 어떤 태도와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사실 유엔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 결코 외면할수 없는 력사적, 법률적, 도의적책임을 지고있습니다.

조선문제에 부당하게 끼여들어 북과 남의 분렬을 교착시키고 지난 세기의 50년대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자기 이름을 도용한 다국적무력을 투입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을 재난과 희생으로 몰아넣은 그 모든 죄행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이 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인류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정의를 지향해야 할 유엔이 자기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는것으로 자신들이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엔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합법적인 주권국가이며 당당한 유엔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조선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분렬교착에 동조하고있습니다. 조선반도통일문제에서 기본장에는 우리 민족내부에 끼여들어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명분을 얻으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와 무분별한 책동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불청객만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끼리 벌써 오래전에 순조롭게 풀렸을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 엄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저들의 예측속에 있는 남조선을 동족대결에 끌어들여 부추기며 조선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정세를 부단히 긴장시키고있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호

추진하고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조작된 온갖 《제재결의》들은 그 집중적발로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와 활동을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결고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고립, 질식시키고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유엔현장에 규제된 법규까지 어겨가며 정치적무대를 제공하고 합법성을 부여해주는것이 다름아닌 유엔입니다.

유엔현장의 그 어디에도 성원국들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고 핵시험을 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제하여 놓은 조항은 없는것으로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로 하여 지금까지 수백차례 걸쳐 핵시험을 하고 술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단 한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라고 간주됩니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우리 공화국만이 당치않은 《도발》과 《위협》의 감투를 쓰고 날갈도적인 제재와 압박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며 수십년동안이나 이 땅에 핵전쟁위협을 가해오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도발자입니다.

우리의 핵은 그 누구를 침략하고 위협하자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대를 두고 롱락해온 미국의 야망과 강도적정치를 저지시키고 제 나라, 제 땅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위적수단입니다.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끈질긴 침략위협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보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었을것입니다.

유엔은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도발이며 누가 누구를 성토하고 재판하여야 하는가를 미국의 전횡과 독단에 돌아나지 말고 똑똑한 제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유엔산하 기구들에서 있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결고들며 《결의안채택》이니 뭐니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한 제도를 전복하고 붕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외곡과 날조, 모략으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벌리는것이야말로 용납될수 없는 비렬한 정치적대행위입니다.

특히 지금껏 수십차례 걸쳐 유엔

에서 채택된 인권결의안들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가장 란폭하게 유린하는 미국이 그 무슨 《인권보호자》로 자처하며 남의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끼어드는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모든것은 자기 활동에서 온당한 기준과 주대도 없이 일국의 정치적으로 통략당하고있있는 유엔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대국이라고 하여 그 어떤 약행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을 공공연히 감행하는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자기 발전의 길을 자주적으로 열어나가기려는 정당한 모색과 노력만이 《범죄》시되고 제재와 압박을 받아야 한다던 과연 여기에 무슨 유엔이 제창하는 국제정의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크고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고낮은 나라는 있을수 없습니다.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야말로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이며 평화유지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유엔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활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부당한 주장을 무작정 복창해나신다면 누구도 그런 국제기구를 신뢰하지 않을것입니다.

유엔은 일국중심의 이중기준, 이중자대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자주적인 지향과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조성할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맹렬한 시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옳바른 해결에 응당한 기여를 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천명된바와 같이 조선의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우리에게는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와 힘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은 오히려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에 복잡성만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전망을 어둡게 만들뿐입니다.

유엔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줄곧 간섭해나서면서 영구분렬을 추구하고 미국의 책동을 더이상 묵인하거

나 그에 무력대고 동조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과 관련하여 철저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참된 출발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와 유엔간판을 도용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위험천만한 북침군사행동의 무조건적인 중단에 있습니다.

유엔은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념원을 옹계 보고 적극 지지해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한다면 유엔이 미국으로 하여금 부당한 침략야망과 대조선적대시정책책무리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존재해오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고집하는 일방적인 《제도통일》론에 내포된 부당성과 위험성을 똑똑히 가려보지 않는다면 유엔은 불순하고 비렬한 술책에 함부로 우롱당하는 무책임한 기구로서의 오명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기구를 움직이는 주요인사들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에 기여될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전횡과 독단, 강권을 휘두르는것이 체질화된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면 유엔은 정의와 공정성을 잃은 기구로, 유엔의 주요인사들은 아무런 주권과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로 락인될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시기이며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유엔은 조선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이제라도 평화보장기구로서 자기 할바를 행동에 옮겨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사무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세계최대의 관심이 쏠려있는 조선반도정세완화와 통일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것으로써 유엔역사에 의미있는 한페이지를 새겨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참가자일동

주제 105(2016)년 6월 9일 평양

남조선에서 통일념원마라손집회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추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6.15공동선언발표 16돐기념 통일념원마라손집회가 진행되었다.

전라북도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과 수십개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그리고 시민, 청소년 등 3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추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와 함께 열렸던 평화통일의 대장정이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멈추어섰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남북화해》, 《평화실현》이라고 쓴 선수번호판을 단 참가자들은 북과 남, 해외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징이 울리는 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념원안고 6.15km의 거리를 기운차게 달리였다.

남북협력,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의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현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통략당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세에 놀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들이 빚어

욱 로공화하면서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한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수급줄게들을 대양 건너에까지 불러들이며 승미사대의식, 동족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동족과는 대결의 무거운 휘장을 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넘겨버치는 역적

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 핵전쟁발원지로 전락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소동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는것 역시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적행위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지금 반공화국압살기도를 더

지고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외세는 오늘도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지금 반공화국압살기도를 더

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 핵전쟁발원지로 전락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소동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는것 역시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적행위이다.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참예한 때일수록 민족문

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민족정기는 자주를 앞세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성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혼연불고 변명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지금 해내의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력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해내의 온 겨레의 통일열기는 삼천리강토우에 차넘쳤고 각계각층은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어가고 있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이 만들어졌고 끊어진 땅길, 바다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이 모든 성과들은 반통일세력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리정표는 훼손되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되었다.

이 땅은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충돌위협과 전쟁위기는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붕괴, 대결정책을 고집하면 겨레의 단합도 평화적통일도 결코 실현할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70여년간의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래왕, 련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 결연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나가자!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여는 열

쇠는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 있다.

북남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시키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겨레가 원치 않는 군사적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군사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벌려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들이 진행된다

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6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것도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려는 애국애족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격폐와 대결의 장벽에 부딪쳐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의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통일회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적인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자!

조국해방 71돐 민족공동행사와 북남로동자통일촉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 농민,

녀성, 언론, 학술, 종교 등 각계각층의 회합을 개최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높이며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자!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자!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령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련대해나가자!

해내의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북,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겨레의 앞길에 가로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제 105(2016)년 6월 15일

6.15민족공동행사를 파란시킨 박근혜패당의 반통일적범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해내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오늘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성대히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하였다.

원한서린 분계선을 지적해 두고있는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그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패당은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어온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의 자체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온 박근혜패당은 6.15남측위원회 대표들의 회의참가를 불허한데 이어 그들이 파감한 결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범죄시하면서 매 사람에게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지어 괴뢰패당은 개성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요구한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신청마저

불허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발사 등으로 대남위협이 계속되고있고 총체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꾀변까지 꾀쳐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아나선 박근혜패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구판한다.

얼마전에 있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지금 이를 지지찬동하는 민족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길을 차단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는 박근혜패당의 처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지향을 략폭하게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며 북남합의들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다.

박근혜패당의 이러한 책동에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통일열의에 겁을 먹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얼룩진 저들의 가련한 처사를 합리화해보려는 비렬한 목적이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이

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두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떨리는 《유신》파쑈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반통일공포가 무섭게 몰아치고있으며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패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어대고 있는데 대해 지금 온 겨레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이룩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깡그리 짓밟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박근혜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대결적행동이 계속될수록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해내의 각계각층 단체들과 굳게 련대연합하여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 제2의 6.15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주제 105(2016)년 6월 16일 평 양

임기말의 악취나간 발자취

얼마전 남조선TV에서 벌어진 폭소를 터뜨릴 장면이 나왔다.

집권자의 《국회》개원연설을 소개하면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로 써》라고 하였던 것이다.

후에 TV방송측이 《발자취로 쓴다.》를 오기한 《단순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민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집권말기에 이른 집권자의 행적이 정말 그렇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해외나들이만 다니고 《협력의 정치》를 표방하더니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한 19대 《국회》에 발걸음을 해대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세월》 호참사진상구명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것이 바로 현 집권자이다. 북남관계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풀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자는 《선 비핵화》니, 《진정성》이니 하고 동족의 선의에 뒤발질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치마바람을 일구며 싸다니면서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해나서고 있다.

가관은 고열에 복통을 앓아 주사까지 맞아가며 돌아왔건만 가는 곳마다에서 걸어진 것이라 비웃음과 모멸, 랭대라는 것이다.

집권자의 뒤를 따라 외교부장관이니, 국방부 장관이니 하는 것들도 《대북압박공조》를 위해 해외에 총출동해나섰건만 그들 역시 집권자의 신세와 다를바 없었다.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국방부 장관은 것처럼 민던 미국에게서 《동맹자》 소리도 듣지 못하고 대국들의 짝에 끼운 《샌드위치신세》로 눈치만 보다가 돌아왔으며 아메리카로 날아간 외교부 장관은 《대북압박공조》 대신 거꾸로 경제 적부담만 한가득 안고 무거운 걸음을 돌려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6월초까지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결의》 리행보고서를 190여개 회원국가운데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얼마 되지 않은 나라들만 제출하고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동안 반공화국 《제재》의 앞장에서 날뛰던 남조선보수당국은 닭똥뽀 개신세가 되고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화국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보유한 한것은 미국때문이며 그것은 웅당한것으로 생각한다.

또 그것은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미국을 대변하

여, 미국보다 더 소란스럽게 《북핵》을 고아낸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기신기신 찾아다니며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하고있으니 어느 나라가 존엄도 주대도 소견도 없는 남조선집권자들을 께게 보겠는가.

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도 저들의 리속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데 되지도 않고 될수도 없는 《북핵포기》만 소란스레 짓어대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그저 샅샅이 《응석》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남조선집권자며 그 수하들이 가을중 싸다니듯 돌아왔건만 가는 걸음마다 남긴 것은 동족대결의 악취요, 얻은 것은 외교적망신이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에 《대북압박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차레전것은 《동네 북신세》라고 개탄하였는가.

허물어져가는 제 집도 수리못하는 가련한 처지에 누구를 어찌보려고 어지러운 자옥만 남기며 돌아치는 남조선집권자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수치와 망신을 당한것은 웅당하다.

《퇴임사는 발로 쓴다.》, 그 말만은 정확히 짚었다.

눈먼 망아지 위낭소리 듣고 따라간다고 한치얕도 못보는 청맹파니가 되어 미국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조선집권자나 보수집권세력의 외세사대, 동족대결, 매국배족의 발자취는 정치적운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니, 무덤에 이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조선녀성공민들을 즉시 송환하라 국제기구 성명 발표

남조선당국의 친인공노할 집단유인람치만행을 규탄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가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조선공민들에 대한 집단유인람치행위를 《자원적인 랄복》으로 둔갑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정보원깡패들을 내세워 중국 절강성에서 조선녀성공민들을 집단유인람치하였다.

박근혜패당이 《자원적인 랄복》이라고 떠들고있지만 조선녀성공민들은 이를 부정하였으며 조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유인람치된 피해

자들의 가족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리사회의장에게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였다.

이번 집단유인람치만행은 음흉한 정치적목적에 감행되었다. 우리는 조선녀성공민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본사기자

